

9월의 전주, 사회적 경제 꽃피운다

‘사회적경제 박람회’ 19~20일 ·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22일 연이어 개최

사람, 생태, 문화와 사회적 경제 가치를 추구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국제회의가 오는 9월 전주에서 열린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각각 개최한다.

먼저 올해로 3회를 맞는 2017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는 전주시와 국제생태문화협회인 ‘Local futures’,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함께 주최한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사람, 생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국내, 외 전문가와 기관, 현장기업가 등이 대거 참여해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주제로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는 뜨거운 강연과 토론을 펼친다.

국제회의의 첫날 개막식에는 사이먼 리처드슨 호주 바이런 사이어시 시장과 로컬퓨처스 프로그램 디렉터이자 로컬푸드 전문가인 아나 링백, 미국 버몬트주 몬트펠리어시 공동체개발 기획관이자 지역금융 전문가인 그랜 돌린 홀스미스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어, 22일에는 홍중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윤난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주제 강연을 이어간다.

특히, 올해 국제회의에서는 지역화와 상생의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의미래, 로컬푸드,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등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워크숍도 진행

된다.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1일부터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 후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도 간단한 등록절차를 통해 워크숍 및 세션 참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개막 하루 전부터 이틀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2017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연다.

이 행사는 올해로 3회째 진행되는 전주형 사회적경제 브랜드 행사로, 전주시 100여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가하는 ‘모두의 소셜마켓’,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상담회, 사회적경제 일자리 훈련 참여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채로

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김기영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무한경쟁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과 사람, 생태가 최우선이 되는 사회적경제 가치를 시민 전반에 확산하고자 한다”며,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전주의 미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로컬 퓨처스는 ‘행복의 경제학’의 저자로 잘 알려진 스웨덴 출신의 언어학자이자 에코페미니스트,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여사가 설립한 민간단체로, 지난 2012년부터 미국과 호주, 인도 등에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안재용 기자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전주시는 1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군부대, 경찰서 등 통합방위 주요기관장과 단체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을지연습 대비 3/4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방위협의회의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을지연습 앞두고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을지연습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사드배치 등의 이슈로 인해 국가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정보원의 북한 대남위협 전망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 전주시의 을지연습 실시계획 보고를 들었다. 또, 전주2대대로부터 주요 연습일정 및 군사훈련 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시는 1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군부대, 경찰서 등 통합방위 주요기관장과 단체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을지연습 대비 3/4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개최했다.

박창진 신부 ‘국보법 위반’ 무혐의 처분

검찰 “이적동조로 보기 어려워... 사회 문제점 지적·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는 내용”

연평도와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창진(75) 신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박창진 신부에게 3년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신부의 발언이 북한의 주장과 합치되는 것도 있지만 이적동조로 보기 어렵다”며 “전체 내용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신부가 평소 북한을 싫어하

는 발언을 한 점, 북한 주장에 부합하는 집회에 참여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개최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에서 “독도는 우리 땅

인데 일본이 독도를서 혼란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썩버려져, 안 썩으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라며 “마찬가지로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 계속하면 북한에서 썩어쥬.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예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나 농민을 잘살게 해주지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낙인찍으면서 종북논리를 선 거에 이용하며 집권을 연장해 왔다”면서 “천안함 사건도 북한이 어뢰를 쏘아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발언했다.

/김민근 기자

아이를 차량에 홀로 두지 마세요

차량 안에 남겨진 아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16일 완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에 전주 시내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27개월 된 아이가 차 안에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아이의 엄마가 실수로 차량내부에 스마트키를 놓고 문을 잠그고 내리는 바람에 아이가 차안에 갇힌 것이다.

119구조대는 출동해 30여분 만에 뒷 자석에서 자고 있던 아이를 구조했다.

또 지난 11일 한 세차장에서 세차 중인 차량 안에 남겨진 아이가

차량키를 만지던 중 문을 잠가 구조대가 출동한 사례도 있다.

위의 경우 대부분 실수로 벌어진 일이지만 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 아이들의 체온은 성인에 비해 3~5배 빨리 올라간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 폭염 속 폐쇄된 차량의 온도는 단 몇 분 사이에도 빠르게 상승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차량에 남겨진 아이가 질식사 등의 이유로 매년 37명 정도가 사망한다.

따라서 영·유아 부모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항상 키를 휴대하고 아이를 차량에 홀로 두지 말아야 한다.

/이상민 기자

건설업체에 뒷돈 챙긴 진안군 공무원 구속

건설업체에게 뒷돈 챙긴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진안군 안전재난과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달길천·정자천 수해지구 하천정비사업’ 과정에서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신 시공사 소속 현장소장에게 회식비 명목 등으로 1,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해당 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같은 혐의로 A씨 외에도 2명의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고양이 훔친 30대 불구속 입건

헤어진 여자친구의 고양이를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16일 절도 등의 혐의로 노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는 지난 12일 오전 12시에 전주 시 중화산동 전 여자친구인 A(35)씨의 집에 침입해 애완용 고양이 2마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노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았다”며 “같이 기르던 고양이라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살충제 달걀 전수조사 실시

전주시가 살충제 달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23개소와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살충제 달걀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15일 자정을 기해 모든 농가의 달걀 출하 및 식용란 수집판매업소의 달걀 구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닭에는 사육이 금지된 피프프로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경기도 남양주시와 강원도 철원군 등 2개 농가와 진드기 퇴치제인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0.01ppm)를 초과한 경기도 광주시,양주시 등 2개 농가에서 반출된 달걀의 유통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문제가 된 달걀의 유통실태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현재까지 살충제 성분이 확인된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된 달걀에는 ‘08마리’, ‘08LSH’, ‘09지현’, ‘08신선’라는 표기가 적혀있다.

/안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